

2024년 10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안지연	10/6	[출발 600]더 길어지는 육아휴직...실효성 높이려면 [뉴스현장]역대급 폭염에 8월 최고누진요금 1천만 세대 돌파	
김홍태	10/13	[뉴스리뷰]머리 맞던 최상목·이창용...'경제 구조개혁' 한 목소리 [뉴스워치]가계대출자 157만명, 빚 갚는 데 연소득 전부 쓴다	
안지연	10/20	[뉴스초점]올해 노벨문학상 주인공은 소설가 한강..."놀랍고 영광" [토요와이드]우리나라 아파트인데...이름은 '펠리스·캐슬'	
최미연	10/27	[뉴스리뷰]법사위서 '김여사 동행명령' 야 강행처리...집행은 불발 [뉴스프라임]대통령실 "동행명령장, 일당독재 민낯"...민주당 "김여사 고발초치"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2023. 01. 31	-
활동	최미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2024. 07. 25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4 10/6(일)	안지연	9월에도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냉방 전력 수요가 이어졌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누진 구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누진제 전기요금이 주택에만 적용되고, 전기요금 누진 구간 기준이 7년째 유지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누진 구간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역대급 폭염으로 지난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최고 요금을 적용받은 가구가 천만 가구를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한국전력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는 1,02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누진제는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평균적인 가정이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한다는 비판과 함께 7년째 그대로인 누진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는 지난 8월, 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 최고 구간에 진입한 가구가 천만 가구 이상으로 집계되었다고 전하면서 누진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 증가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히, 누진세 도입 취지와 달리 평균치를 사용하는 가구가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한	[경제단신] 역대급 폭염에 8월 최고누진요금 1천만 세대 돌파 자료 인용을 통한 현상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전문가 목소리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는 점과 누진구간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 보도는 인용 자료에만 의존해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덧붙여주었다면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경우 제도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길 바랍니다.	
2024 10/13(일)	김홍태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달 30일 뉴스리뷰인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재부 세종청사에서 만났다는데요, 두 사람은 협력 의지를 피력하며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국은행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재부 세종청사를 찾았다는데요, 중앙은행의 수장이 기재부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두 수장은 통화정책 독립성을 이유로 유지해온 긴장 관계의 관행을 바꿀 때가 왔으며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고 하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관계가 독립성에 기반한 다소의 긴장 관계라고 본다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두 기관	[장한별]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경제 구조 개혁' 한 목소리 단순히 지금의 현상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간의 맥락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다각도로 뉴스를 전하고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이 거시경제 정책을 하는 양 측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과거 두 기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음 좋았을 것입니다. '긴장 관계'가 실제로 어떤 형태였는지, 어떤 정책적 차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약간의 멘트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넓은 경제구조'와 '공급자 중심의 경제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한 언급과, 이를 개혁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간단한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두 기관의 협력 강화가 실제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기에 이에 대한 전문가의 간단한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금리인하가 있었고, 금리인하에 대한 당정과 한국은행의 입장이 일정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두 기관의 수장이 가진 이에 대한 입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짚고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2024 10/20(일)	안지연	지난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작가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처음이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한강 작가의 작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드라마와 영화, K팝 등이 세계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는 우리 문화도 그 중심에 설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지난 11일 뉴스초점에서는 문화평론가와 함께 수상의 의미와 작품의 가치 등을 짚어	[뉴스초점] 올해 노벨문학상 주인공은 소설가 한강...“놀랍고 영광” <전화연결 :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 겸 문학평론가>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전문가를 연결해 대담을 하는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해 좀 더 깊고 다양하게 들어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다양한 면에서 노벨문학상의 의미를 짚어

		봤습니다. 먼저 전문가는 한강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고 역사와 사회의 상처 등을 다루는 작가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강 작가가 그려낸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 즉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 세계의 공격성을 제어하는 것이 수상자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강 작가의 작품이 해외 독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봤다면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이유나 성공 배경 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볼 질문을 만드는 것은 부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다각적인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10/27(일)	최미연	연합뉴스TV는 지난 21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 병력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를 철저히 숨기며 주민들의 동요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파병에 따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 외화, 자원을 받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북한이 군사적 경험을 쌓고, 장기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무기 지원이나 기술 이전 같은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보도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동북아 및 유럽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이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복잡성을 상대적으로 단순화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교류 전망이나 우리 정부 대응 등도 다른 기사들에서 조각조각 다룬 적이 있으나, 말씀 주신 대로 심층적으로 사안을 짚어주는 방식의 보도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p>한 면이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적, 군사적 교류에 더욱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내부 정치적 동요 가능성보다는 러시아와의 협력에서 나올 군사적 결과와 그 영향에 주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합뉴스TV가 북한의 군사적 동향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한국의 움직임이나 대응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인 추가 보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p>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4. 10. 06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7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 제도 확대 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었는데, 이를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제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보도는 정부의 저출생 대표 대책 중 하나인 모성보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 단축 사용 기간 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기존에 부부가 최장 1년 동안 쓸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나 3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남은 휴직 기간을 두 배로 계산해 사용할 수 있고, 난임 시술 휴가도 3일에서 6일로 연장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는 출산·육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 이행과 정부의 지속적 감시의 필요성도 덧붙였습니다. 보도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관련 법안 개정

대해 다뤘습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의 확장을 알렸는데요, 부부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이 개인 가정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게 합니다. 이 보도는 현행법과 개정안을 자료화면을 통해 제시해 시청자들이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제도 불이행으로 인한 신고 사례 등을 설명하며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보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정부의 지속적 감시를 지적했는데, 이와 유사한 다른 나라의 제도와 비교를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제안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육아 휴직과 출산 휴가 등 제도의 개선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효과 등을 소개하거나 해외 사례 등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면 더욱 풍부한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9월에도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냉방 전력 수요가 이어졌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누진 구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누진제 전기요금이 주택에만 적용되고, 전기요금 누진 구간 기준이 7년째 유지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누진 구간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역대급 폭염으로 지난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최고 요금을 적용받은 가구가 천만 가구를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한국전력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적 구간인 3단계 가구는 1,02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누진제는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평균적인 가정이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한다는 비판과 함께 7년째 그대로인 누진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는 지난 8월, 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 최고 구간에 진입한 가구가 천만 가구 이상으로 집계되었다고 전하면서 누진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 증가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히, 누진제 도입 취지와 달리 평균치를 사용하는 가구가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한다는 점과 누진구간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 보도는 인용 자료에만 의존해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덧붙여주었다면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경우 제도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길 바랍니다. 유명 공연 암표 거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공연 티켓 수요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행해지는 암표 거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짚은 보도를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지난 3월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2시 뉴스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공연법 개정 이후 온라인 압표상들이 검거된 첫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티켓을 사들여 7만 7천원짜리 팬미팅 티켓이 235만원에 거래되는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비싼 가격에 되파는 행위로 피의자들이 적발되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공연 개정법의 핵심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입증하는 것이라 티켓 예매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매크로 이용 정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압수 수색까지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티켓 예매처와 기획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대응 협의체 구축을 통해 압표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공연법 개정 이후 압표 판매 처벌 강화의 첫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티켓 판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규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서 소개한 사례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티켓 판매의 투명성을 높이고 압표 거래로 인한 부당 이익을 근절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표 거래 근절을 위한 장기적 대책이나 기술적 예방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아쉽게 느껴집니다. 압표 거래는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정책적 대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덧붙여졌다면 공연법 개정과 제도의 안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실제 티켓 소비자들이 겪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문제나 예매 과정에서의 불편함 등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예매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과 플랫폼의 기술적 개선 요구 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담긴 내용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교육부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I 기술을 통해 축적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학습에 적용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인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지난 1일 보도에서는 내년부터 도입될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잡음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교육감은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과정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AI 교과서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시범학교 형태로 AI 교과서를 도입해 운영해본 결과, 이 교과서의 도입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교원단체들과 교육부 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도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남은 기간동안 교사들을 대상으로 AI 교과서 교육 연수 확대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우려는 지역별 보급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2일 뉴스센터에서는 교육부의 자료를 인용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 대한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기기 보급

률을 소개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경남이 126%로 보급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을 비롯한 12개 시도의 보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두고 교육부와 교육 현장의 대립을 다뤘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도입 과정에서의 준비의 미흡함과 지역별 기기 보급률 격차인데요, 이 보도를 통해 교육현장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기술 혁신을 통한 교육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년 3월 도입을 앞두고 교과서 내용의 검수 등 준비의 부족과 지역별 기기 보급률 격차는 교육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교육 현장과 교육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도는 교육 정책의 방향성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의미와 구체적인 해결책 등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이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입 취지와 목적, 긍정적 측면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을 덧붙였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사안을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4. 10. 13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72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달 30일 뉴스리뷰인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재부 세종청사에서 만났다는데요, 두 사람은 협력 의지를 피력하며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국은행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재부 세종청사를 찾았다는데요, 중앙은행의 수장이 기재부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두 수장은 통화정책 독립성을 이유로 유지해온 긴장 관계의 관행을 바꿀 때가 왔다고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고 하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관계가 독립성에 기반한 다소의 긴장 관계라고 본다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두 기관이 거시경제 정책을 하는 양 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다가오는 만큼 금리 인하와 집값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두 수장 모두 말을 아꼈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코멘트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편, 토론에서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특히 낡은 경제구조를 수리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는데요, 과거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공급자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해 이젠 수요자와 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설명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방송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수장이 협력 의지를 밝히며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그동안 긴장 관계였던 두 기관이 이제는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두 기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음 좋았을 것입니다. '긴장 관계'가 실제로 어떤 형태였는지, 어떤 정책적 차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약간은 멘트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경제구조'와 '공급자 중심의 경제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한 언급과, 이를 개혁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간단한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두 기관의 협력 강화가 실제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기에 이에 대한 전문가의 간단한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금리인하가 있었고, 금리인하에 대한 당정과 한국은행의 입장이 일정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두 기관의 수장이 가진 이에 대한 입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짚고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 4일 뉴스위치에서는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빚을 갚기 위해 연간 소득 전체, 혹은 그 이상을 사용하는 가계대출자가 1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빚을 갚기 위해 연간 소득 전체, 혹은 그 이상을 사용하는 가계대출자가 1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자의 7.9%에 해당하는 157만명이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이 높은 대출자가 늘자 연체율도 함께 높아졌다는데요, 올해 2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년 전보다 0.03%포인트 늘었고, 같은 기간 비은행권의 연체율도 0.3%포인트 증가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소득 전체를 빚 상환에 사용하는 가구가 157만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수치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1년 전과 비교한 증감 수치가 있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요, 157만명이 작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난 숫자인지, 증가 추세는 어떠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에 대하여도 전달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금리문제, 부동산 가격 문제, 생활비 증가 문제 등 원인은 간단히 짚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나라 경제에 가져올 문제점을 외국 사례 등을 통해 간단히 언급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지난 4일 뉴스센터에서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흉기 휴대와 폭행, 절도 등 혐의로 아파트 주민인 4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는데요,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흉기 휴대와 폭행, 절도 등 혐의로 아파트 주민인 4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

데요,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A씨는 아파트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뺨을 때리고 걷어차는가 하면, 다른 주민의 택배를 훔치고 몸 뒤에 흉기를 숨긴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씨를 체포한 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시키며 격리 조치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위험한 사건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조치 과정을 잘 설명하여 시청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있어 좋은 모습입니다. 다만 사건의 배경과 범행의 동기에 대한 맥락은 보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씨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등의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와 같은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원인과 그 예방책에 대해 간단히라도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 대책 부분도 간단히 언급하여 이러한 경우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음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4일 뉴스현장에서는 부산의 부산진경찰서는 시내버스 안에서 4살 아이와 할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20분쯤, 부산진구 가야역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4살 B군과 B군의 60대 할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A씨는 B군의 팔이 자기 무릎을 스쳤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을 때렸고, 제지하던 할머니의 팔을 깨물기도 했다는데요, 경찰은 노인복지법과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방송은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빠르게 전달하며, 사건의 경위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4살 아이와 할머니를 상대로 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노인복지법과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점도 법적 대응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버스 내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좀 더 상세히 전달했고, 버스 기사나 다른 승객들의 대응은 어떠했는지도 전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씨가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인지, 이전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약자들인 피해자들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 지도 설명했음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2일 뉴스오늘에서는 요즘 노인 인구 천만 시대에, 우리 주변엔 새로운 일자리에서 인생 2막을 계획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이 커피를 내려드리는 시니어 카페가 오픈했다면서, 서울의 한 구청 청사 1층에 새롭게 개장한 카페라고 합니다. 3년째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 주민 이영민 씨가 능숙하게 라떼아트를 그려냈고, 스스로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합니다. 주름잡힌 손으로 분주히 커피를 내리는 이곳은 시니어 카페인데요, 근무조건은 단 하나, 노인이면 된다고하는데요, 내년부터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기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노인 일자리 공급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합니

다. 카페에서 두번째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시니어 바리스타들은 바빠서 더 행복한데요, 서울 금천구 주민 이순애는 큰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집에 있으니까 우울증이 오는데, 여기서는 바쁜 한테 너무 재밌다며, 일이 없는 게 더 힘든 것 같다고 합니다. 지자체들은 카페를 비롯해 편의점, 택배 등 수익형 모델을 통해 신규 고령층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선순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윤경 금천구청 어르신 장애인과 주무관은 수익금은 또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장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된다며, 노인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단순한 생계 유지가 아닌 만족스런 노동을 지속가능하게 해줄 공간 마련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고령화 시대의 긍정적인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시니어 바리스타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노인 일자리의 경제적 의미를 넘어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의미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카페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도 보도했음 좋았을 것인데요, 몇 명의 어르신이 일하시는지,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정보는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입니다.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시니어 바리스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함께 전달하면서, 노인 일자리의 현실적 과제나 한계점도 짚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4. 10. 20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7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지난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작가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처음이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한강 작가의 작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드라마와 영화, K팝 등이 세계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는 우리 문학도 그 중심에 설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지난 11일 뉴스초점에서는 문화평론가와 함께 수상의 의미와 작품의 가치 등을 짚어봤습니다. 먼저 전문가는 한강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고 역사와 사회의 상처 등을 다루는 작가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강 작가가 그려낸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 즉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 세계의 공격성을 제어하는 것이 수상자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스웨덴 한림원이 한강 작가의 시적 산물에 스며있는 문학 정신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 새로운 세계 문학의 추이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세계 무대에서 한강 작가의 정서가 통했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대표 작품인 채식주의자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자신의 문학 주제로 승화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겪은 고통과 노력의 과정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한강 작가를 떠받치는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번역의 중요성도 언급했는데요, 한글 고유의 맛과

정서를 살려 훌륭한 작품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 문학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 문학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번역하고 우수한 번역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강 작가의 수상은 세계가 한국에 도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대담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기쁨과 그 의미를 깊이있게 다뤘는데요, 작품의 내용을 넘어 작품이 지니는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함께 짚어봤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작품에 대해 단순한 문학적 성취를 넘어 인류의 공격성과 이를 제어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짚었고, 시적 산물을 높이 평가하며 수상 이유로 강조한 것을 통해 한강 작가 문체의 특성과 문학적 깊이를 잘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언급하며 한강 작가의 수상이 미래에 한국 문학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말을 번역 할 때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시작으로 우리 문학이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강 작가의 작품이 해외 독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살펴봤다면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이유나 성공 배경 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아파트는 그 이름에 건설사와 지역명, 주변 지역의 특징 등을 혼합해 외래어로 이름을 짓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외래어의 혼용이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분양가와 시장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이름이 길고 복잡해지면서 노년층은 이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2일 토요일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국내 아파트 이름이 길고 복잡해지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파트이름이 길고 복잡해졌는데 지역명과 건설사 이름, 특징을 붙여 순우리말로 된 아파트를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236개 아파트 단지 중 98.3%가 아파트 이름에 외래어를 사용했고, 이름이 긴 건 물론이고 외래어까지 섞여 한 번 듣고는 어디에 있는 무슨 아파트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젊은 사람은 인지하기 쉽지만 영어로 아파트 이름을 지으면 노년층은 못 찾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초 아파트 이름의 글자수는 10자 내외, 지역명을 쓸 경우 옛 지명으로, 우리말을 사용해 아파트 이름을 쉽게 짓자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렸다고 전했는데요, 전문가는 우리말을 사용해 브랜드 가치를 좋은 주거라는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한글을 사용하면 오히려 독특해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어 당장 큰 변화의 기대가 어렵다는 점과 브랜드를 강조하고 외래어 애칭이 많을수록,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인식을 넘어야 하는 과제도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아파트 이름이 길고 복잡해진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외래어로 이루어진 아파트 이름 사용의 증가를 다루면서 서울시가 나서서

한국어 기반의 명확한 이름 사용을 권장하는 점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서울시가 부르기 쉬운 아파트 이름으로 지을 것을 권장하고 있어 고령층과 외국인에게 소통의 불편을 줄인다는 점과 우리말 사용의 장려 등 긍정적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안의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과 외래어 사용에 대한 건설사 관계자의 의견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아파트 이름을 짓는 것은 건설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는 해당 권고사항을 인지하고 있는지, 개선 의지가 있는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면 서울시가 제시한 권고사항의 효과를 예측해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다룬다면 정책의 변화나 대중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직장 내 전통적 관행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아직 남아있는 '모시는 날'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하급자가 상급자의 식사비를 부담하는 이 전통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더 나아가 현대적 직장 문화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뉴스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공무원 사회에 남아있는 '윗분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해 전했습니다. 특별로 순서를 정해 상관인 과장이나 국장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비용은 전액 말단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 구청은 요일별로 모시는 날을 맡을 팀을 정해 시간표까지 짜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한 구청 직원은 실수령액이 180만원이 채 안되는 9급 공무원들이 월급 4~500만원씩 받는 국장과 과장이 젊은이들에게 밥을 얻어먹는 건 말이 안되지만 인사고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올해 초 전국공무원노조의 조사 결과 중앙부처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사라졌으나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 같은 관행이 불편하다는 답변이 90%에 육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서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공무원 사회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모시는 날' 관행에 주목했습니다. 이 관행은 하급자가 상급자의 식사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히 저임금 공무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보도는 공무원 사회에 남아있는 관행의 문제점과 저임금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부담을 잘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의 촉진과 불필요한 직장 문화의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날 많은 직장에서는 세대 간 차이와 새로운 가치관을 반영해 불필요한 의례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서 불필요한 관습을 재평가하고 조직 문화가 시대 흐름에 맞춰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관행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이 언급되지 않아 아쉽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개입이나, 하급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복지적 지원책 등이 다뤄졌다면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다양한 의견이 담긴 보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대학 입시는 학생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있을 만큼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연세대학교에서 논술고사 문제 유출 의혹이 불어져 입시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뉴스리뷰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공정성 훼손으로 문제지를 회수했다라도 그 사이에 문제지를 먼저 받아본 응시자들은 한 시간 정도 머릿속으로 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과 정식 시험까지 핸드폰 사용이 가능했다는 점, 다른 고사장 친구를 만나거나 이동이 자유로웠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심각한 공정성 훼손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 한성대에서도 40분 뒤늦게 문제지가 배부되는 등 줄지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어 대학이 전형료 장사에만 관심을 두고 수시 시험 관리는 뒷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가는 교육부가 이 사건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감독관의 교육 및 행위에 대해 수능 시험 정도의 감독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연세대학교 논술고사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입시 관리 감독 체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시험 문제 유출로 인해 발생한 관리 상의 허점이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가능성을 지적했고 입시에서의 관리 감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험 관리 체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냈다는 점과 관리 감독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의 법적 대응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또는 이러한 사례가 향후 입시 관리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의 분석을 포함했다면 더욱 깊이있는 보도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최미연 시청자평가원(24. 10. 27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7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법사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두 사람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날선 대립이 이어졌으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야 간 갈등 상황이 당분

간 지속될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의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불출석을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여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명령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가 발생해 명령장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어를 위해 이 사안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김여사 동행명령 집행 불발 이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의회 일당독재의 민낯"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태가 다음달 주요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국회의 정당한 동행명령장을 고의로 회피했다고 반발하며, 김 여사를 고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그 집행 시도와 이후 대통령실의 반응과 민주당의 비판 성명을 통해 여야 간 정치적 대립 구도를 중심으로 보도함으로써 사안의 중대함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정치적 긴장감을 전달하고 여야의 입장을 균형있게 소개하여 시청자들에게 상황의 맥락을 제공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인 증인 출석의 법적 정당성과 실제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정치적 공방에 치우친 보도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법적 쟁점이나 국회 절차의 타당성, 민주적 절차의 의미를 분석하는 관점에서의 보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이 무기에 이어 군 병력까지 러시아에 대규모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행보에 관심이 쏠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북러 파병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안보리 대북 제재 체제에 대한 공격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면서 북러 군사 협력 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의 대처도 중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21일 북한의 우크라인 파병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 병력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를 철저히 숨기며 주민들의 동요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파병에 따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 외화, 자원을 받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북한이 군사적 경험을 쌓고, 장기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무기 지원이나 기술 이전 같은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양국의 전략적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적 반응과 제재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인 파병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 병력을 지원한 정황에 대해 비판하며, 북러 간 군사협력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 회의에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이를 국제 규범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협력이 동북아 및 유럽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반발했고, 러시아 역시 서방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파병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보도한 두 기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지원하며 이를 내부적으로 숨기려는 전략을 분석하고, 군사 기술이나 자원 같은 보상을 기대하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북러 관계의 흐름에 따라 한국 정부가 유엔 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한 점에 초점을 맞추며, 국제사회의 반응과 제재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동북아 및 유럽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이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복잡성을 상대적으로 단순화한 면이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적, 군사적 교류에 더욱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내부 정치적 동요 가능성보다는 러시아와의 협력에서 나올 군사적 결과와 그 영향에 주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합뉴스TV가 북한의 군사적 동향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한국의 움직임이나 대응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인 추가 보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필요와 연금 수급 부족 등의 이유로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대비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고령층의 창업 증가도 주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구조 변화와 고용 시장에서의 세대 간 불균형도 사회적인 변화의 맥락에서 이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27만 2천 명 증가하며 674만 9천 명을 기록, 처음으로 5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고 연합뉴스 TV가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60세 이상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취업자 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고령층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령층의 창업도 증가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변화된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의 고용지수와 취업자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연합뉴스 TV는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한국의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4만 4천 명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

몰렸습니다. 정보통신업과 운수업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각각 7개월, 5개월째 감소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역대 최대 규모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청년층 고용은 감소했고, '쉬었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건설업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연금 수급액 부족, 생계 유지 필요, 노동시장에서의 고령층 수요 증가 등의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 일부 산업의 고용 정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보도를 통해 고령층 취업 증가와 청년층의 어려운 고용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로 명확하게 전달해 현 상황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 감소의 원인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더 심층적인 분석이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가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면 더 균형 잡힌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찰의 압수물 횡령 등 비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경찰이 압수한 물품이 범죄수익일 경우,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몰수추징이 선고되는 즉시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일부 경찰이 이를 빼돌려 사적으로 운용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공직자의 신뢰와 책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찰관들이 압수물 횡령, 수사 기밀 유출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압수된 3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 자금을 빼돌렸고, 다른 경찰관들도 유사한 비위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사태가 커지자 전수조사에 나섰으나, 이러한 비위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해 사법 신뢰에 큰 손상을 입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 수뇌부는 기강 확립을 강조했지만,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압수한 금품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경찰의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증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압수된 불법 도박 자금 및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두 경찰관은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경찰은 공직자 청렴을 강조하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압수물 횡령 등에 대한 보도는 사건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히 경찰의 비위 행위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여, 이 사건이 경찰의 제도적 허점과 관리 부실을 드러낸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의 문제가 사건의 증대함을 의미하지만, 비위 사건의 보도 논조가 비판에만 집중되어 경찰 수뇌부의 대응 노력이나 자정 의지에 대해 비교적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균형잡힌 보도 시각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이러한 추가적인 보도는 경찰 내부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필요여부, 또는 외부 감시 기구의

필요성 등 더욱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 2024년 10월 6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10월 13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영호시 (영유병원 대우)</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10월 20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10월 27일 04시/ 최미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최미연 시청자평가원 시립대학교 인천영유연구소 연구부</p>